

1. 통상현안정보

■ 유럽 아웃소싱 시장 급성장, 중-동유럽이 혜택 본다

- 유럽 정보통신 아웃소싱, 금년과 내년 20%대 성장 전망 -
- 한국 업체도 중동구 진출 통한 EU시장 진입 적극 검토해야 -

- 최근 유럽의 정보통신분야 아웃소싱(outsourcing)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중동부 유럽국들이 아웃소싱 활동의 대상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미국의 테크놀러지 전문연구회사인 Forrester Research에 따르면, 유럽 정보통신기술(ICT) 아웃소싱 시장은 2003년 950억 달러에서 금년 1,170 달러, 내년에는 1,430억 달러로 확대 일로를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유럽 정보통신기술 아웃소싱 시장 현황과 전망 >

(단위 : 억 달러)

2003년	2004년	2005년
950 (74%)	1,170 (23%)	1,430 (22%)

(자료원 : Forrester Research)

* 주 : ()는 전년대비 증감율

- Forrester에 의하면, 유럽 업체의 아웃소싱 주문의 대다수는 아직도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및 체코 등지로 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최근 들어 EU 신규 가입 2개국, 폴란드와 헝가리가 아웃소싱 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폴란드와 헝가리는 '외주' 시장에서 아시아 국가는 물론 체코에 비해서도 출발은 늦었지만, 최근 아웃소싱 계약을 만만찮게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와 관련, 경영 컨설팅사인 A.T Kearney는 2003년 폴란드가 1억 650만 달러의 계약고를 올렸다고 밝혔음.
-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비롯한 중동구 국가들이 앞으로 아웃소싱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이란 견해에 대해서는 IDC 등 여타 시장조사기관도 공감하고 있음. 지난 7월에는 A.T Kearney가 국별 노동력 수준, 교육 및 언어 구사, 영업환경, 아웃소싱의 현행 실적 등 요소를 기준으로 해외 아웃소싱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국가순위를 발표했는데 체코(4위), 폴란드(10위) 및 헝가리(11위)가 상위권에 자리한 바 있음.

< 해외 아웃소싱 (offshore outsourcing) 적격국가 순위 >

① 인도	② 중국	③ 말레이시아	④ 체코	⑤ 싱가포르
⑥ 필리핀	⑦ 브라질	⑧ 캐나다	⑨ 칠레	⑩ 폴란드
⑪ 헝가리				

(자료원 : A.T Kearney)

- 그렇다면, 왜 유럽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늘리는 것일까? 네델란드 컨설팅사 CBI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유럽 IT 업계가 아웃소싱을 하는 최대 이유는 비용 절감(35%)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문화된 기술(20%), 기업 내부인력 부족 및 인터넷 자원 타 용도로 활용(각 12%) 등으로 조사되었음.
- 중동구의 경우 인건비가 저렴하며, 우수 인력이나 숙련노동력 확보가 용이하여 위의 요건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서유럽과의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 및 물자·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으로 특히, 서유럽 업계를 위한 아웃소싱 기지로 급속한 발전이 기대됨.
- 금년 5월 EU 확대와 함께 중동구의 저렴한 사업비용, EU의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과 관세 차별, 거대시장 등을 감안하면, 한국 기업도 중동구 진출을 통한 EU 시장 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문의처: 바르샤바무역관 김삼식 sk7192@kotra.or.kr)